

국내경기는 4개월 만에 악화

~ 노토반도 지진 및 난동(暖冬), 자동차 부정문제 등으로 개선경향이 스톱 ~

(조사대상 2만 7,308사, 유효회답 1만 1,431사, 회답율 41.9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4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.7포인트 감소한 44.2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 외에 난동(暖冬)으로 인한 계절상품 부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개선경향이 스톱하였다. 향후의 국내경기는 2024년 문제 등 구조적인 악재를 떠안고있는 가운데 계속된 임금인상이 초점이 되어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- 난동(暖冬)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이 폭넓은 업종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쳐 10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악화되었다.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, 1개 지역이 개선되었다.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『호쿠리쿠』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「이시카와(石川)」는 전국에서 가장 침체하였다. 또한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. 규모별로는 「대기업」「중소기업」「소규모기업」이 4개월만에 모두 악화되었다.
- 노토반도 지진에 대하여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, 기업은 소비 자제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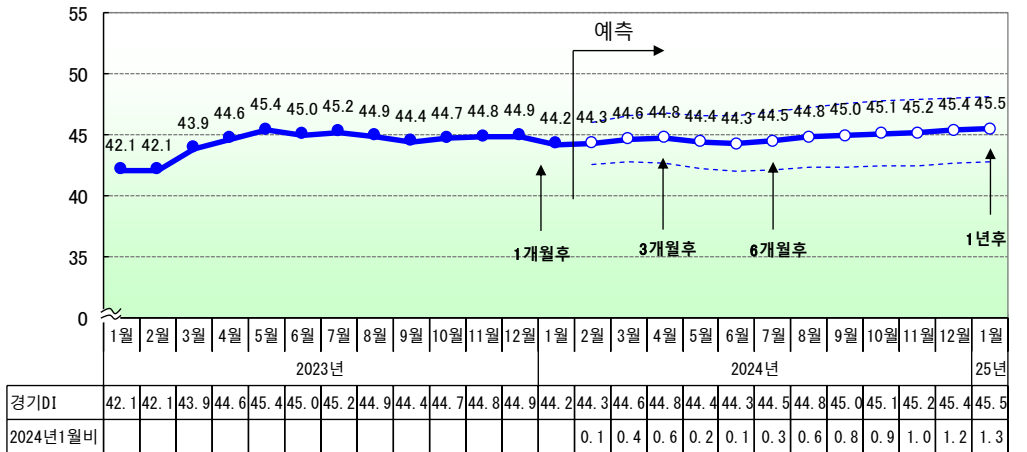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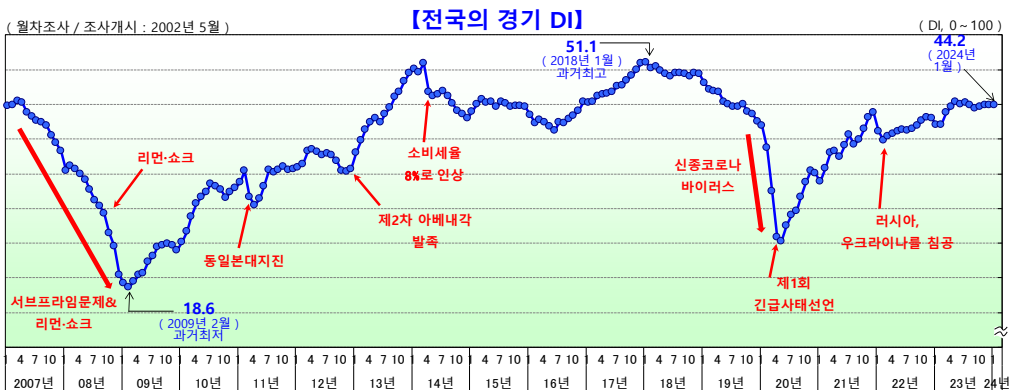
< 2024년 1월의 동향 : 개선경향 스톱 >

2024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.7포인트 감소한 42.2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 외에 난동(暖冬)으로 인한 계절상품 부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개선경향이 스톱하였다.

1월은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하여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 등의 조업정지 및 소비 마인드 저하와 같은 악영향이 나타났다. 또한 난동으로 인한 겨울상품의 매출부진 및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. 게다가 료칸 및 호텔 등에서는 오프시즌을 맞이하여 수요 침체가 보였다. 한편 도시개발 및 반도체관련 설비 수요 등은 경기를 지탱하였고 닛케이평균주가 등 안정된 금융시장도 호재였다.

< 향후의 전망 : 보합경향으로 추이 >

향후는 인바운드 수요 외에 GX 등의 설비투자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임금인상으로 인한 개인소비의 행방이 열쇠가 될 것이다. 가격 전가의 진전 등으로 인한 기업 업적 개선, 경제대책 실시, 생성형 AI발전 등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. 또한 노토반도 지진의 복구·부흥 수요는 상승세 요인이 될 것이다. 한편 인력부족 및 전문가 부족, 2024년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물가 및 금리 동향 등의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. 게다가 자동차 부정문제 및 해외경제 동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. 향후의 국내경기는 2024년 문제 등 구조적인 악재를 떠안고있는 가운데 계속된 임금인상이 초점이 되어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.



※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. 점선은 예측치의 폭(예측구간)을 나타내고 있다.